

해외선교 36주년 기념 자료집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전교주일 강론집



이 책은 그린라이트(80g)지를 사용하여 콩기름 인쇄하였습니다.

해외선교 36주년 기념 자료집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성재덕 신부
전교주일 강론집

글쓴이 | 성재덕 베드로

(Pierre Marie Louis Nestor SINGER, M.E.P.)

펴낸곳 | 성가소비녀회 역사연구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우) 02721

전 화 | 02) 940-5800 / 5973

누리집 | <http://www.holyfamily.or.kr>

S N S | <https://www.facebook.com/holyfamily1943>

발행일 | 2018년 9월 13일

인 쇄 | Just Project

전교주일 강론집

고맙습니다

- 불어 자문 | 정효선 벨라뎃다
- 화보 촬영 | 김우중 스테파노 S.J.
- 「홍산의 천주교회」 자료 제공 | 내포교회사연구소

1부 전교주일 강론 모음

선교지에서 본당 신자들에게

01. 1956·1968 논산·홍산	002
02. 1960 논산	007
03. 1966 홍산	011
04. 1967 홍산	016
05. 1979 장소 미상	022

고향 에덴^{Hesdin} 신자들에게

06. 1963-10-20 에덴에서	026
07. 1968 홍산에서	034
08. 1969-09-08 홍산에서	043
09. 1970 성가소비녀회에서	051
10. 1971 성가소비녀회에서	059
11. 1972-09-08 성가소비녀회에서	065
12. 1973-09-23 에덴에서	072
13. 1975-09-08 성가소비녀회에서	078
14. 1976 성가소비녀회에서	082
15. 1977-09-01 성가소비녀회에서	087
16. 1981 성가소비녀회에서	092
17. 1982-09-05 성가소비녀회에서	099
18. 연대 미상	103

소비녀들에게

19. 1972·1975	108
20. 1977-10-23	113

차 례

2부 연표 119

3부 해외선교 36주년 기념 특별전 화보
기억하라, 축복하라, 희망하라 소비녀

선교사, 설립자를 기억하다

선교사의 꿈
예언자의 삶

소비녀, 축복하고 희망하다

길을 떠나
길 위에서
길을 향하여

4부 「**홍산의 천주교회**」 성재덕 신부가 제작한 천주교 홍보 책자

본 강론집은 성가소비녀회 설립 75주년과
의정부·인천 양 관구설립 10주년을 맞는 2018년에
특별히 해외선교 36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되었다.


본고는 해마다 전교주일에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영적·물질적인 원조를 요청하며 각 사람의 선교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독려하는 강론이다. 여기에는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가 선교사로서 예수 삶의 자취를 따랐던, ‘하느님 영광과 영혼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원의와 열정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본문 내에 성재덕 신부 스스로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일부 내용은 공의회가 정신에서 볼 때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관점의 차이는 차치하고, 당시 강론 원고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오늘 이 땅에서 각기 다른 모습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든 소비녀들을 재촉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저마다의 자리에서 ‘관상적이고 예언적인 선교사’로서의 역동을 살아내는 데에 본 강론이 하나의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본고에 인용된 성경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 따르며,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단, 성재덕 신부가 부분 인용하면서 성경 본래의 구절을 변형하여 설명한 내용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성경 말씀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 본문 글꼴을 똑같이 적용하였다.



선교지에서
본당 신자들에게

1956년 · 1968년

논산·홍산에서 신자들에게

주님의 생애에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유대입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 사도의 대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기만 먼저 생각하고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고귀한 신분에서 추락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마태 26,24ㄷ; 마르 14,21ㄷ)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세례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로 들어 높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또 돈을 너무 좋아하면 유대처럼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누리던 자리에 다른 이를 부르실 것입니다. 마치 유대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티아 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비신자, 이교인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 교황님을 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

니라, 보다 큰 정신·큰 마음을 가지고, 교황님의 권고대로 세상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이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가르침 안에서 주님께서서는 이점을 자주 상기시키셨으며, 백인대장의 종을 낮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 와,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마태 8,11)

이미 그분께서는 탄생 때부터, 외국인인 동방박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습니다. 다른 종교들 중에 어느 특정 민족, 특정 시대에는 괜찮지만 그 밖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이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는 참으로 보편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홀로 직접 온 땅을 다니며 설교하려 하지 않고, 사도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가르치고 파견하시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합니다. 성령강림 후, 사도들은 길을 떠나 세상 곳곳을 두루 다니며 지중해 연안, 로마, 그리스, 프

랑스, 스페인,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인도까지 갔지요. 기원 후 112년에 비티니아의 총독 플리니우스는 ‘이 예수의 가르침은 큰 도시 뿐 아니라 작은 고을까지 퍼져나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0년 경 테르툴리아누스가 ‘예전과 달리, 우리는 이제 제국 곳곳에 퍼져있습니다’라고 한 기록도 있습니다.

한편 로마는 4세기에 벌어진 큰 전쟁에서 고전하였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국 쇠퇴기 당시, 많은 수도자들이 이방인들을 회개시켰는데, 이때야말로 위대한 선교의 시기가 펼쳐지던 때였습니다. 보니파시오, 베네딕토, 콜롬바노, 파트리치오 등 많은 수도자들이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헝가리, 러시아, 시베리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 그린란드까지 갔지요.

중세 시대에는 이슬람교 때문에 교회가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그로인해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불순종으로 인해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 위대한 수도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가르멜회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은 아프리카, 모로코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 수도자들이 중국에도 갔는데 어떤 원장수사는 심지어 4,000명의 선교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492년, 신대륙 발견으로 선교사들도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 50년이 지나,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면서 유럽은 안타깝게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가 지녔던 자원이나 신자들도 그만큼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는 멈추지 않았으며,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인이며, 새로운 사도 바오로라 불리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선교는 점점 확장되어,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 그

지역 출신의 주교나 사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머지않아 한국 선교사들이 시베리아라든가 다른 여러 나라로 예수님을 전하러 떠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유럽의 가톨릭 신자 수는 2억 명가량 됩니다. 아메리카에는 1억 3천만 명, 아시아에는 2천만~3천만 명, 아프리카에는 천만 명, 오스트레일리아에는 3백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세계의 가톨릭 신자 수는 총 4억 명 정도가 되는 셈인데, 아쉽게도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가톨릭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 합하더라도) 지구의 30억 인구에서,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23억 명이나 된다니요. 예수님께서로부터 전 세계를 가르칠 임무를 부여받으신 교황님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자선을 통해 전교 활동을 돕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귀를 막지 말고 성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인간은 육신의 양식인 빵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는 행위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불행한 이들, 아픈 이들을 돕기도 하셨지만 두루 다니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걸어서 마을을 두루 다니며 땀을 흘리셨고,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배 위에서 잠들기도 하고 우물가에서 지쳐 쉬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인내롭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도록 합시다! 희망 없이, 진리도 없이 사는 비참한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세를 줍시다. 일 년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라도 교리를 가르칩시다. 당장 단 30분이라도 비신자를 가르칩시다. 저는 오늘 이교인 마을인 신도안리에 갑니다. 여기 계신 신자들이 기도해주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에 힘입어 저는

분명 신도안리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견진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 그분을 위해 싸우십시오. 교황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무엇이랄도 말입니다. 300원이라도 보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기도 끝에 주모경을 바치면서, 선교의 주보이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전구를 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전투보다도 큰 전투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천상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부자든 가난한 이든, 누구라도 무엇인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어라도 해야만 합니다. 주교님¹⁾ 말씀대로 여러분은 주일에만 신자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며, 모든 가정이 열심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아멘.

1) 당시 주교의 전교주일 담화문인지, 어느 주교의 어떤 말을 일컫는지 알 수 없다.

1960년

논산에서 신자들에게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요한 10,16L)

교황님의 명대로, 우리는 오늘을 전교주일로 지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의 영혼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오늘 이 점을 함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선교 사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세계의 인구는 28억 쯤 됩니다. 그중 5억 명이 가톨릭 신자이고 4억 명이 정교회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수가 무려 20억 명이나 됩니다! 생각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매년 약 700만 명의 새 신자들이 생겨나는데, 그중 600만 명이 신자 자녀들로서 유아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인 입교자는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4,500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이 추세라면 20년 후, 지구상 인구는 40억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는 그만큼 가톨릭 신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십억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 영혼도 역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의 장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생활을 더욱 더 좋아합니다. 과학의 발전으

로 인해 점점 더 돈, 자동차, 좋은 집만 찾고, 자신의 영혼은 생각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육신이 전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습도 걸림돌이 됩니다.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옛 관습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조국에 대한 과도한 애정도 장애요소가 되곤 하는데, 외국 것이라고 여겨지는 낯선 종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중국이나 쿠바에서와 같이 박해나 공산주의 선전이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쉬워 보이는 타 종교의 포교 활동도 또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표양 때문에 신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밖에만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기인한 문제도 많습니다.

물론 사제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사제가 441명뿐입니다. 인구 1,000명당 사제 한 명이 있어야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에는 2만 명의 사제가 필요합니다. 수녀, 수사 숫자도 턱없이 모자라고, 다양한 사도직을 할 자금도 부족합니다. 이곳 논산에서 수녀님들이 주민 수의 10% 정도 되는 2,500명²⁾의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기 이를 데 없어, 도와주고 또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배굶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 이 지옥이 승리하지 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이 가난한 이들에게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각 나라마다 거룩한 사제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전에 사도 바오로를 그리스, 이탈리아로, 성 보니파시오를 독일로, 성 아우구스티노를 영국으로, 성 마르티

2) 1961년 논산본당 신자 수는 2,972명이었고, 당시 논산군 인구는 231,243명이었다고 한다. 성재덕 신부가 주민 수의 10%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내용은 통계와 맞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되, 강론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 <http://non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nonsan>

노를 프랑스로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가톨릭 신자 5억 명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 사랑을 알게 하는 교회의 사명에 협력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다. 그래도 2천 년 역사동안 교회는 점점 자라났으니까요! 교회의 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많은 사업이, 교회 덕분에 세상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병원, 나환자촌을 비롯한 각종 자선사업, 사회사업, 교육사업 등을 보세요. 중국과 여러 나라에는 초세기 교회처럼 여전히 순교자들의 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희생이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방인 사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나라마다 그 지역 출신 주교들이 많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인도, 중국, 일본, 필리핀, 아프리카 출신 주교들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내년이나 후년에 로마에서는 공의회가 개막될 것입니다. 지난 공의회가 열렸던 100년 전만 해도, 주교 수는 6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참석하는 주교의 수는 무려 2,5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교회를 돕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 논산³⁾에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돕는 일에 충분히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를 통틀어 우리가 로마로 보낸 금액은 16,220환(16달러)이었습니다. 각 신자들이 5환 40전 정도 봉헌한 셈인데, 이걸 적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교황님을 도와야 합니다. 적어도 일 년에 100환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강론 원고에 본래 타이핑한 것은 Nonsan이지만, 훗날 붉은 글씨로 ‘홍san’으로 고쳐 적은 표시가 있다.

전교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인류 구원에 협력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시니까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당신 자신께 해 드린 일로 생각하십니다.

1966년

홍산에서 신자들에게

백 년 전, 흥선 대원군 시대에 한국 땅에서는 큰 박해가 있었 습니다.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주교 두 분 (베르뇌 장 주교, 다블뤼 안 주교)과 일곱 분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충남 보령 오천에서 순교하셨 으며, 곧 시복될⁴⁾ 것입니다. 그중 젊은 사제였던 백 신부님은 한 국에 온지 겨우 6개월이 막 지났을 때 순교하였습니다. 그분에 관 해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스토 백 신부님은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꼬마 유스토가 양친과 산책 을 나갔다고 합니다. 겨우 일곱 살이었던 그는 갑자기 땅에 엎드 려, 바닥에 귀를 대고 무슨 소리를 듣더니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 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저를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 소리 가 들리지 않으세요?”

형제 여러분,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서와 같이, 여러분도 좋으신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교 황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

4) 기해박해, 병오박해의 순교자 79위의 시복식은 1925년에, 병인박해의 순 교자 24위의 시복식은 1968년에 거행되었다.

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이교인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오늘날 지구에는 3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옛날보다 수명이 길어져,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가 3억 명, 힌두교도가 4억 명, 이슬람교도가 5억 명,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9억 명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천백만 명, 그리스도인이 10억 명가량 되는데, 그중 로마 가톨릭 신자가 6억 명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2억 5천만 명인데, 그 안에 분파가 400여 개나 됩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2억 5천만 명입니다.

세계 약 120개 국가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필리핀과 남아메리카의 몇몇 나라들처럼 가톨릭을 완전히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교가 이제야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선교지역도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차이나 반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교인들의 나라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을 나누는데, 영적인 관점에서도 빈곤국과 부국(富國)이 구분됩니다. 사제가 많아 마을마다 한 명쯤 있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사제가 부족한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제가 52,000명이나 있는데, 한국에는 715명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만히, 무감각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교황님 입장이라고 가정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분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교황님에게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황님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비체입니다. 교황님의 근심이 바로 우리의 근심입니다. 교황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또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직의 기초는 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는 살아 움직이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2,14ㄱ)

성부께로부터 파견된 첫 선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오직 하나뿐인 참된 교회만이 다른 이들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의 통교, 성부 하나님과의 통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일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전파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성삼위께서 우리 안에 생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결합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다른 교회들이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고, 그분과 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은 지배하려는 것도, 강대한 힘을 갖기 위함도, 돈벌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돈

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하느님이 맞다면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합니다. 만일 하느님을 믿고 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물질적인 것도 역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녕과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품위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이야말로 인간을 영적으로 고양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느님 없이 인간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 6,3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에 무심경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전교주일인 오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오, 주님, 사람들이 악마에게 속아, 원죄와 각자의 죄로 눈이 멀어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인류에게 빛을 밝혀주시고, 신앙을 주소서. 당신 자녀들을 내면 저 깊은 데서부터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신앙을 지닌 저희도, 믿지 않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있나이다.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이제부터 저희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좋은 표양을 보이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모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마다 가정과 작은 마을에서부터 가능한 무엇이든 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언제나 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구를 위해 주교님을 도와야 하고, 전 세계를 위해 교황님을 도와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황님이 우리보다 더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도와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짓느라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고자 하십니다. 어떤 지역은 우리가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와서 영혼들을 속이고 꺾어낼 위험이 있어, 도움이 시급한 곳도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낌없이 바치십시오. 담배 한 갑보다 더, 막걸리 한 잔보다 더, 영화 관람권 한 장보다 더 많이 봉헌하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은 우리가 그저 한 푼 던져드리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부는 나랏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군함과 전투기를 만듭니다. 또 달나라에 간다고 로켓을 만듭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전교주일 헌금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찌 귀를 닫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본당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전교주일 헌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67년

홍산에서 신자들에게

선하신 우리 주님의 전 생애 동안,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많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 두 가지 계명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실상 둘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사슬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움직임이지만, 하나의 덕인 것입니다. 주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제자라는 표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4-35)

또 성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1요한 4,20ㄴ)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⁵⁾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1요한 3,10ㄱ)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한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4L-36)

천주의 성 요한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성인이 가난한 이의 발을 닦아주었는데, 남루한 차림이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요즘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를 도우려고 마음먹는 것, 그런 자선은 오히려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마태 6,25ㄷ)

영혼들을 일깨우는 것, 무지한 이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애덕 행위 중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 강생과 구원을 모르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큰 불행 중에 있는 사람이 동냥을 할 때, 그 청을 거절하는 것도 모름지기 큰 죄입니다만, 믿지 않는 이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를 거부하는 것

5)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1서의 말씀이며, 출처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은 더 큰 죄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좋은 표양과 말로 다른 이들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자들이 앓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지요. 그분께서 영혼들을 위해 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 안의 온 마을과 고장을 두루 다니시다가 피곤에 지치고 땀을 흘리셨습니다. 배 위에서 주무시고, 우물가에서 지친 몸을 돌보기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군중을 가르치시며, 훌륭한 비유들로 인내롭게 설명해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희망, 사랑을 통해, 또 성체성사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가까이 있는 이들도 사랑해야 합니다만, 예수님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중국인, 러시아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인... 모든 이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오늘 이 전교주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도록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가 이방인에게로 가서, 땅극변에 이르도록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나)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황님만 홀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백성 모두가 교회입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 즉

우리가 모두 교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 형제인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이들의 영혼을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선교사입니다. 조국과 부모님, 친구들을 떠나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사제,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도 있습니다. 교황님의 원의대로, 요즘은 2~3년씩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대가 없이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혼자, 기혼자 할 것 없이, 많은 젊은이, 의사, 농부, 엔지니어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합니다. 일례로 한국에도 한센인 형제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전주나 소록도 등… 제가 아는 영국인 가톨릭 신자 한 명은 대구에서 매매춘 여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아름답군요, 멋지네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의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심하게 있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사랑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예비신자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사제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남아메리카에는 모든 이가 가톨릭 신자임에도, 사제는 없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사실은요? 이 점을 알고 계시나요? 이곳 아시아만 해도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시베리아 등지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한 영혼이 지닌 가치는 세상의 모든 부요함보다 귀합니다. 부요함은 물질에 지나지 않으나, 영혼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도 언젠가는 선교사들을 파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제, 수도자를 비롯한 선

교사들이 이 나라 아닌 다른 곳으로 일하러 떠나야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 좁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처럼 탁 트인, 큰 생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필리핀에도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선교사들과 비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 곳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기니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사제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예를 살펴볼까요? 중국과 북조선에서는 더 이상 미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시아 곳곳에서 불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셋째, 우리는 애궁, 현금으로도 교황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현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황님께서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영혼들을 위해 돈을 쓰는 데에 얼마나 인색한지, 참으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비행기나 군함, 대포를 만든다고 수십억을 퍼부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에 가고, 술을 마시고 노는 데에 얼마를 쓰십니까? 그에 비해 영혼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봉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로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어른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측면에서 아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 정신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그저 어린애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특히 여러분 가족에게 선교할 정신이 없다면, 나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

든 것을, 진심으로 그리스도 왕국을 위해 교황님께 내어 드립시다. 봉헌합시다. 우리 모두는 전교⁶⁾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6) 성재덕 신부는 강론의 말미에 붙여, 한국어를 병기하여 육필로 ‘homme de 전교’라고 기록해 두었다.

1979년

선교지 어느 본당에서 신자들에게

형 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황님께서 명하신대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전파와 비신자들을 지향으로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생각하며, 그분이 갈망하신 것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생각에 비하면 인간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온 생애동안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성체성사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기에 몇몇 사람만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지상 생활을 마치고 떠나실 때, 그분의 마지막 명령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 28,19 참조) 인간 구원을 염려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

으며 지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교황님과 주교, 신부들에게 나쁜 생각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황님이나 주교님들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근심할 일입니다.

다행히 본당마다 많은 선한 신자들이 이것에 마음을 쓰고 있으며, 예비신자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는 250명이 넘는 성인 예비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본당 신부를 돕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해봅시다!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저는 열정이 가득한 본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잘 아시겠지요? 영혼들을 가르치도록, 교황님께서는 사제와 수도자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전투의 전진기지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예수님처럼 온 삶을 봉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도 신앙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웃을 가르칩니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까? 고해성사 때 보면,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매우 실제적이고 중대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 죄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백만 프랑을 훔치면 신문에 나고 경찰 조사도 받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백만이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누구에게도 이

야깃거리가 되지 못하며, 아무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얼마나 바보입니까!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지 이천 년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죄악입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각자가 노력을 기울이면 교회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류를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그것을 퍼트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라디오, 영화, 신문, 선전활동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참된 진리를 지닌 우리가 잠자코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각 사람의 영혼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성교회는 온유함과 사랑 그리고 진리를 가르칩니다. 군대도 탄환도 없이, 교회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마태 28,19 참조) 교회의 원수들은 힘으로 세상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주 더운 나라나 극지의 빙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간구합시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전교주일을 맞아 제가 여러분께 권고하고 싶은 것은, 딱 한 시간이라도 사방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가서 신앙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교회의 중심인 교황님을 도와드릴 것을 당부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신앙을 전하되, 분명한 점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댕 Hesdin
신자들에게

1963년 10월 20일

에덴에서⁷⁾ 신자들에게

전 교주일인 오늘, 교회는 우리의 선교 정신을 돌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선교 정신은 단순히 느낌이나 감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생각으로 우리 내면에 더 깊숙하게 스며들도록, 날마다 생의 모든 순간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의 무지함이나 오해를 보면서 그저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다”(마태 12,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정신은 그리스도교 본질 중 하나입니다. 이 선교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혼들에 대한 염려를 깊어지도록 만듭니다. 마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듯, 멀리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선교 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교회는 튼튼하고 생기가 넘쳐날 것이며, 교회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교 정신이 있었

7) 병고로 인해 치료 차 프랑스 체류 중, 에덴에서 고향 신자들에게 했던 강론이다.

기에 초세기 교회는 아테네나 로마 같은 어마어마한 거인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이란가 특별한 방법 없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800주년을 기념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프랑스의 다른 멋진 대성당을 짓는 데 들인 기술력이 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식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옛날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해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술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선교 정신이 점점 없어지면서, 교회는 경직되고 과거의 영광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선교 정신임이 분명합니다. 이 선교 정신이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교 생명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 정신이란 애덕의 실천이며, 참된 사랑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동 말입니다.

첫째, 선교 정신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미사 때 우리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하며 천사들의 찬미를 자주 되풀이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오 하느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 혹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하고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도 분명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소리 높여 찬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요하게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을 능가하여, 오직 인간만이 영혼과 지성과 말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에, 마땅히 하느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이들이, 자기 전 존재와 소유한 모든 것이 사랑하올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이를 부정하기까지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른 한 편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감각에 젖어들어, 하느님을 위해 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녕 이들만은 하느님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요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 바로 그 창조목적은 이미 자신들 안에서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찬미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모든 이들은-의롭다 하는 이들조차도-얼마만큼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 가장 위대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버지의 영광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요한 17,4-6ㄱ)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요한 12,28ㄱ)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성부께 오롯이 완전한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말형이신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찬미에 우리의 찬미를 합하여, 깨끗이 만들어 성부께 올려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또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고 청하고 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이름을 알게 되어, 모든 이가 하느님을 흠송하고 사랑하며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일 사람들을 사로잡겠다는 이런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지나쳐가는 누구라도, 하느님께 무관심하거나 죄인인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쓰디쓴 아픔이야말로 우리를 선교 사명으로 재촉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갈망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면,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고통받을 뿐 아니라, 죽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에서 빛나가고 창조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치 대규모 공장단지에서처럼 비인격적으로 살거나, 생각이 없는 로봇처럼 살거나, 아니면 단순히 일련번호로 취급되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정 가득한 삶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미사성제를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합니다. 전교주일 미사에서 영성체 후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이 미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강생에서부터 다음 말씀과 같이 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히브 10,5-7)

당신 사도들을 잘 준비시키신 후, 주님께서서는 이 거룩한 제사를

8) 당시 영성체후 기도의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늘날에는 전교주일 미사의 예물기도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제정하심으로써 삶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인류는 성부께 영광과 영예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미사에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미사를 거행하지 않는 나라가 남아있는 한, 모든 인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미사가 완전하게 거행되지 않고 서는, 예수님의 강생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영광과 희생제사의 거행이라는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둘째, 우리가 선교 정신을 고취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세상 구원을 향한 열정 때문입니다. 대대로 교황님들은 이 점을 자주 역설하셨습니다. 특히 비오 11세⁹⁾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능가하듯, 천상이 지상을 넘어서듯, 영원이 시간을 초월하듯 선교하는 사랑이야말로 다른 어떤 업적이나 사랑의 증거보다도 위대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형제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맡긴 풍요로운 보화를 충분히 나누어받지 못하여, 영원한 삶이 걸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확실한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가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서로의 구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각자 자기가 비추임 받는 바에 따라서, 또 고유하게 지닌 능력대로 협력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어떤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9) 비오 11세 (재위 1922-1939) : 제259대 교황으로 ‘선교 교황, 가톨릭운동의 교황’으로 불린다.

다행히 우리에게 약이 있어서 그 고약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질병에 맞서는 면역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건강한 이들이, 끔직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사와 약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날,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사업이라든가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양실조는 훨씬 더 심각하여, 아주 막대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기를 겁내지 맙시다.

복음서의 탈렌트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고귀한 신앙을 물어둘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것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열매 맺기는커녕 싹을 잘라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애덕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理想)은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저 조용히 지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냉담자들을 권면하고 본당 신부를 돕는 일 등 갖가지 노력을 수반하는데, 이것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협에 처했거나 사고로 희생당한 이에게 도움을 주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재판관들이 심리하고 형을 선고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문명화된 나라라면 말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들의 영혼에 무관심하다면,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자비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선교 정신을 지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와도 같습니다. 모든 실재 안에 심어진 교회는, 참된 신앙의 삶을 위한 생명의 구심점입니다. 교회 없이, 다른 일반적인 방식은 구

원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를 닮은 자녀 출산을 사랑의 목적이라고 상기시키듯이, 교회 건설이 특히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번식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므로 그분과 동일시되며,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여러분의 행동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본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인류가 진리와 영 안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역시 인류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비체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 선교 의무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거짓말쟁이는 바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 사명은 사제라든가 교계 제도 안에 있는 몇몇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백성 모두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이교인들, 무신론자, 믿지 않는 이들은—그들이 죄인인 경우에만—그리스도의 바깥에 있기에, 생명과 진보에 있어서도 밖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들 없이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신비체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위대한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용감하고 굳건하게 이 영광스러운 전

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아멘.

1968년

홍산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주목할 만한 점 중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지니신 온화함입니다! 그분은 결코 뽀족하고 냉엄한 말로 죄인들을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 8,11ㄴ)

그분은 배반한 유다에게도 친구라고 부르시며 ‘무엇하러 왔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나약함과 죄악을 속속들이 아시기에, 그분께는 우리 허물이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진정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이 이루어지려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талан트를 땅에 숨겨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실을 내지 않은 종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 25,30)

주님께서서는 지옥에 던져진 이들에게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마태 25,41L-43)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위선자들에게 더 준엄하게 경고하고 비난하신 까닭은 그분을 도와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막고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한 이들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21L)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4L-36)

형제 여러분, 전교주일인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농사짓고 장사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 육신이 먹고사는 데 관련

된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제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제일 첫째가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이웃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루카 11,2)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최후의 권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나)

공의회¹⁰⁾에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교회라 함은 교황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교, 사제들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모든 백성, 즉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지니고 있던 생각이요, 그분 안에 한결같이 불타고 있던 원의였습니다. 모든 인간 중 가장 위대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동, 발걸음의 원동력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마땅히 주님 뜻에 따라야만 합니다. 더욱이 교회는 세상 안에서, 영원히 어디에나 계속되는 그리스도이기에, 그분과 똑같이 행동할 수

10)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 2항)

"온 교회가 선교하여야 하고 또 복음화 활동은 하느님 백성의 기본 의무이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이가 깊은 내적 쇄신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서 자기가 지닌 책임을 생생하게 깨닫고 만민 선교 활동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같은 문헌 35항)

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므로 세례 받은 이라면 모두가 타고나는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의 일원이라면, 또 참으로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또 세례와 성체를 통하여 그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선교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선교 정신의 토대를 이룹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주할 때, 골수까지 파고들어 심금을 울리는 전율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믿음은 내밀하고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느낌으로서, 일종의 긴장감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 힘과 에너지와 활동의 끊임없는 원천이며, 참된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선교 정신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초세기 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의 구세주시니, 그분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순교하여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열심한 신자들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저의 구세주, 저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여, 당신 홀로 인류에게 정의, 사랑, 평화를 주실 수 있나이다. 저는 당신이 만방에 더욱 알려지고 공경받으시도록, 또 당신 나라가 임하도록 날마다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나이다.” 선교 정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교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런 신앙은 사이버 모조품, 걸치레 치장, 분칠이나 위선일 뿐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넉넉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입만 살아있다거나 반 외교인쯤 되는 사이버 신

자로 살면서, 오직 세속적인 것에 매진하는 허황된 이상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안락함이 유일한 목적인 듯이 농부, 상인, 공무원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 영혼을 양육시키기 위해 무어라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 성화의 은총이라는 고결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 2,14-7)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떨니다. [...] 믿음이 그의 실천과 함께 작용하였고, 실천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 2,19c.22)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교 정신이 필요하다’고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각자 선교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교의 정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드러내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세 가지 차원, 즉 가정 차원의 실천, 지역 단위에서의 실천, 전 세계적인 계획으로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 안에서, 또 구체적인 어느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커다란 인류 가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자기 가정만 돌보거나 지금 살고 있는 마을만 생각한다면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넓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아 웅졸하고 편협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는 온전한 인간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말은

몸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영혼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과 더불어 우리 예산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 활동은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 단위의 실천

저마다 자기 식구들 번듯하게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한 신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정 안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룩한 표양이 필요합니다. 선한 본보기와 신앙 교육과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마태 7,17)

만일 가정에서 아이들이 비뚤어진다면, 보호자들의 신앙이 너무 약해서 그러한 것이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단위에서의 실천

우리는 또한 지역 안에서의 실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작은 동네, 큰 지역, 국가에 속해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본당과 교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좋은 표양을 보일 의무, 서로 도울 의무, 사도직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재산이 함께 요구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이미 보았듯이, 지역 안에서 시민의 의무와 사도로서의 사명을 놀라울 만큼 잘 수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 할 말이 많으나, 이미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므로 여기서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실천

세계적인 선교 계획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

다! 커뮤니케이션 수단, 언론,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예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민족들의 고통은 물론,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매우 큰 차이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선교 정신을 실천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의무에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당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펼치는 것, 그 한 가지 갈망만을 지니고 세상의 복음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자산을 동원해서 선교 활동에 협력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사람’이라면 브라질에서 인디언을, 비아프라에서는 이보족을 학살하는 것을 두고만 보면서,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강생과 구원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수천만의 형제들이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이나 본당의 작은 울타리 안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다면 훨씬 평온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과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신경 쓸 수 있겠느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모든 이교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물리적인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델 사람인 저는 34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교인들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강요할만한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은 각

자가 도와주고 싶은 곳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더 긴박하게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사가 되어야 할 의무를 지닌 이상, 이 전교주일만큼은 기도와 헌금을 통해 저를 좀 도와주십사고, 겸손되어 여러분께 청해도 되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이교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일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만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관대함으로, 여러 해 전부터 저를 돕고 있습니다. 예뵈 본당 신자 여러분과 신부님께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사도직은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낚시줄로 하나둘 낚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끌어올리는 정도입니다! 올해 저는 140명이 넘는 성인 영세자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임종을 앞둔 사람 53명에게 대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견진자는 20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많은 비신자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곤 합니다. 세 개의 마을에서 교리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몇몇 사람은 벌써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저는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더 많은 곳을 도울 수 있겠고 작은 농민 조합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환등기 상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전례를 더 멋지게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으나, 지난 사순 시기에 모은 봉헌금으로 신자들과 함께 어느 가난한 이의 허물어진 집을 전부 고쳐주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이는 11년간 누워서 지낸,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많은 이가 훗날 예비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면 좋을 텐데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저 미약한 자금만큼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기도와 애공으로, 제가 끝까지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한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21ㄷ)

선교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그 열매를 하느님께 바칩시다. 우
리의 믿음·희망·사랑의 명백한 증표요, 우리가 지닌 선교 정신의
증거로 말입니다.

1969년 9월 8일

홍산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전 교주일인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침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흔히 참석하는 장례식이나, 신문에 나오는 사건 사고라든가 부고에서 접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는 교회가 2주 후¹¹⁾에 말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한 가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세 가지 종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죽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죽음, 무지한 이들의 죽음 그리고 나태한 이들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죽음이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의 선교 사명에 비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많은 이들과 친교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11) 위령의 날을 말한다.

도 그의 실재(實在)는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살아있는 시체’ 즉 산송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죄인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예비신자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영혼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살아있지 못하듯, 영혼 역시 하느님과 결합되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분께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영혼은 하느님과 천사들의 눈앞에, 사실상 송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되찾은 아들 혹은 탕자의 비유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아들은 먼 고장으로 가서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는 곤궁에 허덕이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용서를 청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느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은 옷을 입혀주며 큰 잔치를 벌이고,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였습니다.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루카 15,23L-24ㄱ)

어느 날 바리사이¹²⁾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12) 성재덕 신부의 강론원고에는 ‘바리사이’라고 기록했으나, 성경 본문에는 ‘율법학자’가 질문한 것으로 나온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루카 10,25-28)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죄를 지은 이는 참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의 생명은 걸보기에만 그럴듯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하늘에 들어갈 공덕을 전혀 쌓지 못하며 진실한 선행, 초성적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잘려진 가지와도 같습니다. 또한 예로,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한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듯이, 하느님께서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은 아무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모이신 성교회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러한 ‘영혼의 죽음’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사를 받고 우리 안에 성화은총을 보존하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도록 말입니다. 이에 많은 이가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부인하고 영혼의 생명을 잃기보다,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 중에 제가 아는 한 분을 소개하자면, 저의 벗이나 다름없는 콜랭¹³⁾ 신부님입니다. 그는 공산군의 감옥에서 고문을 받던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죽여라, 어서 나를 죽여다오. 하느님을 배반하지는

13) Jean Colin (1902-1950) : Bayeux 교구 출신으로 한국명은 고일랑 신부이다.

않을 터이니!”

프랑스는 오랜 세월동안 가톨릭 국가이며 성당과 사제, 수도자들이 무수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들, ‘산송장’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교회도 사제도 드문 선교지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네, 여기에도 산송장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육적인 삶 말고도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빌며,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참된 삶을 살아갈 은총을 주십사 하고 하느님께 겸손되이 청합시다. 하느님과 보다 더 일치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합시다.

2. 무지한 자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정신의 죽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앞서 말한 산송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나 당신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때면, 꼭 ‘생명’ 또는 ‘살아있는, 생명의’ 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곤 하셨는데, 잘 보면 참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6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요한 6,63ㄷ)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 8,12ㄷ)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 3,36ㄱ)

그분께서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말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는 그분 말씀을 모르는 이들은 오류 안에 있으며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들은 죽어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받지 않는 이들은 어둠 속에,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며, 오직 그 말씀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경제, 농업, 산업, 정치, 다양한 학문에 관해 우리에게 박식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테지만,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비교하자면 그들의 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조악하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 모든 피조물의 값어치가 겨우 1프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영원하신 하느님은 수백억 프랑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들의 담론은 어린아이의 웅알이나 새들의 지저귀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오로 말씀처럼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1코린 13,1)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을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말하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이는, 비록 못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말로 참 생명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느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며, 오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정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비신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슬픈 일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물론 그들 중에는 의로운 영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그리스도교 국가에 태어나는

행운을 얻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줄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송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행복을 지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그저 무관심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온갖 오류들이 송장에서 나는 죽음의 악취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도와야 합니다.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위해 떠나는 젊은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생활과 영적인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 떠나는 이들을 말입니다.

선교사인 제가 만일 부자라면, 교리교사들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모든 고장을 두루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성당도 짓고 싶고 영사기를 사서 교훈적인 영화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의 중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고, 또 그 필요를 잘 알고 계신 교황님께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3. 나태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는 또 세 번째의 죽음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송장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역시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자녀나 이웃을 가르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들도 산송장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많은 비유들을 떠올려 봅시다. 잘려진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잘려나가 불에 던져질 것

이라는 말씀, 쓸모없는 종은 어둠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든가, 또 어부가 아무 쓸모없는 물고기를 골라서 던져버리는 이야기,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꾼들 비유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분께서는 ‘내 안에 머무르는 이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를 선택하여 열매맺게 하고 그 열매를 간직하게 하는 이는 바로 나다.’ (요한 15,5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모두 일합시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확실하고 건설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짊어질 일이지, 내 알 바 아니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온 우주를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는 무궁무진한 일이니 말입니다. 병자와 허약한 이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치는 기도와 각자가 참아 받는 고통으로, 혹은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업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산송장에 지나지 않은 쓸모없는 종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전교주일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봉헌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바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의 일이며,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힘쓰십시오.

결론

세 가지 죽음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소생 사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인의 과부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 7,14c)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르 5,41c)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요한 11,43)

그러자 그들은 되살아나,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무지로, 또는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 역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하느님께 순명하여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산송장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죄에서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일하십시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니, 우리 모두 일하고 기도합시다. 비신자들이 죄에서 빠져나와 마침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하여 모두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말입니다.



1970년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35년 전 오늘, 저는 고향인 에댕을 떠나왔습니다! 몸은 떠나 왔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너무나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에서의 기억은 결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선택하여 파견하시고, 나라들마다 복음을 선포 하며 모든 이에게 평화와 기쁨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온 35년간의 생애를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언어인 한국어를 배운 후에, 처음 3년간은 두 개의 본당을 거치며 보좌신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서울에 있던 세 개의 본당 중 한 곳에 본당신부로 파견되어 9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과 달리, 지금은 본당이 60개도 넘습니다!) 이후 논산 본당신부로 14년을 있다가 프랑스 체류 후, 6년 동안 홍산 본당신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부터 서울에 있는 성가소비녀회의 지도신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섭리로, 이 수도회를 설립하도록 저를 끌어들이셨습니다. 과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이 선교의 축제일에, 같은 고향 사람인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이끌려서 수도회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또 그 수도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성 베네딕토¹⁴⁾ 성당의 본당 신부로 있던 1942년은 전쟁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비참한 처지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본당 신자들 중 열심히 자매들 몇몇을 눈여겨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울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각기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골 출신이었던 그 자매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있었지만, 배움이 부족하거나 자리가 없어서, 당시 서울에 하나뿐이었던 수도회로부터 입회를 거절당했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그들은 서울에서 식모나 행상 등의 일을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신부님들께 자문을 구한 후에, 저는 그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의 공로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만 그들을 모은 것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했던 제안은 공동체를 꾸려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지내는 것은 그들 영혼과 성소를 생각할 때 위험하기도 할뿐더러 결코 큰 결실을 맺을 수도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살면 합심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자매들 개개인이 더 안전해질 뿐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도 보다 큰 결실을 낼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게다가 자비하심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하느님께서 축복하시어, 진짜 수도자가 되는 것까지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저의 상황도 하루하루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나, 저는 불행한 이가 무수히 많이 생겨날 것임을 예견하면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매들의 선의를 저버리는 것은, 성교회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시작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

14) 프랑스인들에게 낯선 '백동, 해화동'이라는 지명 대신, 해화동 본당의 주보성인 이름을 따서 '성 베네딕토 성당'이라 칭하고 있다.

을 뿐만 아니라 집도 재산도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저야말로 프랑스나 로마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할 때였지요. 그러던 중 성당 가까이에, 허름한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흙마루 집, 단칸방에 좁디좁은 부엌이 전부였죠. 그들이 터를 잡은 곳은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보통 낮 동안은 신자 집으로 식모나 세탁일 등을 하러 가고, 저녁이면 품삯을 가지고 돌아와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 작은 방 하나에 5~7명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길에서 죽어가던 가난한 노인을 모시고 살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는 나병 환자를 모셔오기도 했는데 8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선의를 축복해주셨고 은인들 덕분에 조금 더 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지원자의 숫자도 매주 늘어났지요! 어느 군종신부가 매주 미군들의 빨래를 가져다주어서, 그것이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자매들의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주교님의 승인을 받고자 수도회 규칙을 작성하던 차에, 서울에 하나뿐이던 수도회로부터 두 명의 수녀를 파견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원장과 수련장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녀들의 첫 서약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¹⁵⁾ 첫 방인 수녀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회가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는데 북쪽의 공산군과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령되어 수녀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것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휴전이 되자 수녀들은 새롭게 다시 모였으며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자리를 잡아갔는데, 그것은 저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1948년에 교황님께서 서울교구¹⁶⁾를 전적으로 한국 사제들에게 맡기고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들은 서울교구를 떠나, 남쪽에 있는 새로운

15) 본 강론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성가소비녀회는 서울대교구 설립 수도회 중 만팔이기는 하나, 한국의 첫 방인수녀회가 아니다.

16) 당시 서울대목구

교구¹⁷⁾를 시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산의 본당신부로 부임하게 되어 서울을 떠나면서, 수도회를 서울 주교님의 돌보심에 맡겼습니다. 잘 돌봐주신 덕분에 수녀들이 현재 200여 명이나 되며, 30개가 넘는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저의 부재가 수녀들에게는 오히려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고 수도회 존속을 위해 애쓰는 모든 것을, 첫 시작부터 성숙하게 수녀들 스스로 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느끼기에 수녀들은 지금의 수도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성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고,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업이 확장되면서 문제들도 커져갑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일하는 40명의 수녀들은 건강을 위해 시골에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느님 안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러 이따금 떠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눈에 보일만큼 분명하게 도와주셨으니, 수녀들 스스로도 더욱 열심한 마음으로 살고자 계속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하실 것입니다.

저는 21년간 떠나 있다가 다시 수녀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추기경님과 대전의 주교님이 수락하여 저는 35년간의 본당생활을 마치고 수녀원 지도사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과연 수녀들이 필요한가? 요긴한가?’하는 물음을 가질 겁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수도적 신분이라고 하지 않고, 완덕의 신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도자는 완덕을 추

17) 1948년 서울대목구에서 독립 포교지(missio indepens)로 분리된, 대전 포교지를 지칭

구하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완덕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태 19,21)

완덕은 수도생활이나 일반인으로 사는 것이냐가 아닙니다. 완덕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완덕이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며,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참으로 사랑이 넘쳐흐려, 지극히도 다른 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도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를 이끄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하느님 앞에 머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수사, 수녀, 신부 중에는 사랑이 없고 자기 자신으로 꼭 차서 다른 이를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은 일반인들만 못합니다. 하지만 덕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좋은 사제나 수도자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가정의 기쁨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떠난 그들의 지평은 모든 이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봉헌된 이들이 과연 필요한지, 또 그들의 존재가 유익이 되는지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각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개인적 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유익함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완덕의 신분에서 들어서는 것, 수도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 진보를 위한 탁월한 방법입니다. 개개인으로 볼 때 성화를 향한 오르막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혼을 위해 이것은 지당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복

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백하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태 19,21)

그런데 이 삶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강요되는 것이 아니지요. 완덕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은 각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이며 내밀한 것입니다. 은총을 베푸는 자유는 전적으로 하느님 자신이 지니셨기에, 당신이 원하시는 이를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에사우가 아니라 야콥을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훨씬 똑똑한 다른 사람들을 두고, 오히려 겐네사렛 호숫가의 불쌍한 죄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신비이며, 누구도 이를 거스를 권리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는 수도공동체로부터 커다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도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씨뿌리신 완덕이라는 개념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수도 공동체는 매우 요긴하고도 필요한 것이어서, 수도회가 없으면 창설해야 합니다! 수도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현존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의 삶을 알지 못해, 천국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며 심지어 무관심하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수도자들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느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아주 잠시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를 쌓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안락함과 쾌락을 찾으려 달음질치고, 모두들 자유를 목말라 합니

다. 그런데 마땅히 누릴만한 돈과 쾌락을 거부하고, 순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가 한결같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삶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수도생활은 오로지 그 삶 자체로 전교가 됩니다. 선교를 하다보면, 비신자 가정에서 누군가 한명 신부나 수녀가 됨으로써 가족들이 신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처음에는 매우 놀라지만, 마침내 자신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상(理想)에 감동하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에 선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좋은 수도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선하시어 병자를 고쳐주시고, 애통해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셨고, 무지한 이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실 만큼 선하신 그분께서는 세상에 선을 남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계속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선과 그리스도의 양선함을 수도자들이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병자와 고아, 노인들 바로 곁에서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돌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며 교회가 수도자들을 통해 선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공동체는 유익하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은 모든 이를 위해서 완덕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듯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둑이 필요하듯이, 전염병이 돌 때 치료를 위해 약이 필요하듯이, 세상에는 수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영역에 있어서도 재앙이 있습니다. 선정적인 경향이 만연하고,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앙이지 않습니까? 약물이나 알코올, 요상한 새로운 사상도 또 다른 재앙이 아니

겠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를 바로잡고, 진실과 지혜와 절제를 가르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도자들이 선교지의 본당에서 더없는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모든 곳에 다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수녀들이 본당이나 마을 곳곳에서 여성 예비신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임종자들이 대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병자들을 방문합니다. 또한 마을마다 사제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며, 부모가 소홀히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름답고 정갈한 전례 준비를 돕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도자들 교육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수녀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 셈인데, 그들이 수백 명을 가르쳐 몇 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를 이곳에 놓아주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께 겸손되이 청합니다. 저는 수녀들이 깊고 열성적인 믿음을 얻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구세주께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니는 데에 제가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수녀들이 거룩한 성소를 끈기 있게 지켜나가며,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손안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덴 신자들에게

나 무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때 그 주인의 분노가 어떨지, 우리가 농사를 조금만 알아도 능히 짐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루카 13,6-7)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치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 태워버린다. 많은 열매를 맺도록 너희를 선택한 이는 바로 나다.” (요한 15,5 참조)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멀리 이교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들을 돕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욱 촉구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선교 정신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도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공장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잘려져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먼저,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우리 영혼을 상징합니다. 나무들의 참 주인은 오직 하느님뿐입니다. 나의 영혼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은 하느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심어놓으신 받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 나를 살게 하시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날마다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양육시키는 데에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의 수액이 각 영혼 안에 흐르도록 나를 도구로 쓰고자 하십니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인 기록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교 사업과 사도직에 관한 고민은 특정한 어느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것이요 세례 받은 각 사람의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선교는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며 언제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 뻣속 깊이 염려하고 마음 쓰지 않으면, 우리 신심과 우리 믿음은 한낱 거짓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형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이러한 원의를 잘 헤아리셨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고, 하느님께 영광이 된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열매를 가득 맺은 나무에 견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고자 일합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엄청난 갈망을 넣어 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모두가 마음 깊은 데서 열망하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으로, 흠도 티도 없으며 확실한 행복이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행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맷소사!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느님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원하지만, 여전히 충족되지 않기에 결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세 삶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부와 명예와 감각적 즐거움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참된 행복은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기루 한가운데서 삶을 무익하게 흘러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포도밭 주인처럼 하느님께서 세례 받은 많은 이들을 보시면, 당신 밭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리를 차지하고서도 열매를 맺지 못해, 쓸데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나무를 위해서 그분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부모님과 훌륭한 사제들을 보내주셨으며,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유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서 사도직은커녕 어떤 열매도 볼 수 없으시다면, 아니 오히려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거나 하는 꼴만 보신다면 분노하고 말 것입니다. 몇 해 동안은 참아주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명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루카 13,7c)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져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당은 주님의 아름다운 포도밭입니다. 사제들이 있고 가톨릭 전통이 이

어저 내려오고 있으며, 다른 어느 곳보다도 훨씬 수월한 곳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허락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하느님께서 온전히 정의롭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장육부를 환히 아시고,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또 깊이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명예, 업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과 교회에 대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게 초성적인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전달받은 이들이 우리의 넉넉함과 유익함을 증명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아무것도 바쳐드릴 수 없다면 저는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직 제 탓입니다. 저의 나태함과 잘못이고 저에게 신앙애가 부족한 탓입니다.

전교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각 사람의 선교 정신이, 밖으로의 선교보다 오히려 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도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이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수액을 전달하여, 그들을 풍요로움으로 이끌고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애석하게도 영적인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심지어 나쁜 표양으로 다른 이들이 이 풍요로움을 향유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가족에게서 받은 하느님의 불꽃을 꺼뜨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내면이나 가까운 주변의 사도직에 대한 열망이, 해외 선교 사도직을 잊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자에 대한 사랑은 작은 범주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만큼 크고 넓은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이가 나의 형제이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또 성체성사 때 영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저는 37년 전부터 선교사로 한국에서 살면서, 다른 무엇이 되고 싶다는 원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하느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의 열매는 예전에 에델에서 물려받은 신앙의 불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걸만 번지르르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인구가 어마어마한, 이 드넓은 아시아로 떠나 왔습니다. 인구를 짐작하게 해 드리자면, 제가 사는 서울에, 저희 집 아주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6,000명이 넘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그와 비슷한 학교들이 더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 덕분에, 저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매우 좋은 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수녀들의 수가 200명이 넘고, 그들이 30개 이상의 본당, 병원, 학교 등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을 통해 저는 수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불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홀로 모든 영광을 영원 무궁히 받으시기를 빕니다.

저에게 신앙을 주신 에델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견고케 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느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여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도 저를 계속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데다가, 앞으로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 사랑하는 내 고향 에델의 신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좋은 표양과 권면과 다양한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하느님께 ‘당신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말씀드리는 여러분,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를 살아있는 실재(實在)가 되게 하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일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저 멀리까지. 아멘.

1972년 9월 8일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사 랑하는 고향 형제 여러분, 매년 해외 선교의 날이면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특별히 호의를 베푸시어, 여러분께 몇 말씀 써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한편 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매번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다른 종교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있는 미묘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댕에 사는 여러분은 종교가 하나뿐이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고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톨릭 교회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교황님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몇몇을 제외하고, 에댕 사람들은 거의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을 작정이라고 하지만, 원하던 원하지 않든 수 세기를 거쳐 오며 그리스도교 분위기에 젖어있는 환경 속에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항상 진짜 가톨릭 신자와 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과 반대자가 없으면 해로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경쟁을 통해 분발할 일이 없어지면서, 곧잘 신앙의 생기와 에너지를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갖게 되며, 더욱이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마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상 모든 지성의 기쁨과 영예인데 말입니다. 예컨대 샤를 페기(Charles Péguy), 바레스(Maurice Barrès), 프시카리(Ernest Psichari), 블루아(Léon Bloy), 마리탱(Jacques Maritain), 베르크손¹⁸⁾(Henri Bergson),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 클로델(Paul Claudel), 프루아사르(Jean Froissart)처럼 이름난 사람들을 전율케 했던 형이상학적 논의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반대자가 없으면 많은 이들의 신앙이 물러지고, 이야깃거리라고는 고작 물질적인 문제나 직업, 정치, 스포츠, 돈 얘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연찮게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에 그치고 맙니다. 교회에 동조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자그마한 문제들을 트집잡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니다. 그저 표면적인 것만 조금 알면서 말이죠.

하지만 유구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나라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문제가 침례하게 대립되는데, 놀라울만큼 다양한 종교들의 숫자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라는 것이 때로는 일종의 대용품이거나 이것저것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아주 오래되었고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기에 뿌리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착한지 얼마 안 되는 종교에 대해서는 많은 아시아인들 사이에 그릇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이 ‘서양 종교, 유럽 종교’라고 여겨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역사를 보면서 다른 종교들이 그리스도교를 따라 자기들 종교를 현대화하고 새롭게 정비한답시고 오히려 스스로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18) 우리에게는 프랑스식 발음인 ‘베르그송’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프랑스 인명사전에는 폴란드계임을 감안하여 [berksɔn]이라 발음기호를 표기해 두는 경향이 있어, 본고에서는 ‘베르크손’으로 명기하였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은 어느 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주요 종교들의 사무실 주소와 업무 시간을 소개하는데 아주 뒤죽박죽이지요. 불교부터 온갖 것이 다 있지만 허술한 정보들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의 경우, 대성당 한 곳의 미사 시간만 수록됩니다. 서울에만 해도 70여 개의 본당이 더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여기에 오는 외국인들이 모두 놀라는 것은, 바로 종을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마을마다 성당 종탑이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에멩에 살았을 때, 오래된 우리 성당 종탑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를 아침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성당의 종소리 대신, 새벽 4시부터 울려대는 전자 차임벨 소리¹⁹⁾를 듣습니다. 자는 데 방해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이따금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200개 이상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합니다. 모든 종류를 다 나열할 수 없으니 그중 대표적인 종교 세 가지, 즉 불교, 토속 신앙, 그리스도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민중들 사이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도들이 교리를 잘 모릅니다. 불교 안에도 여러 종단이 있는데, 결혼한 화택승과 결혼하지 않은 비구승이 종종 대립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장려 아래 현대화와 함께 바람직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속 신앙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최근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프랑스에까지 신도를 늘린 종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 종파도 10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본당이 위치한 곳을 보면, 교파가 다른 몇 개의 개신교회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합니다.

이 종교들은 모두 고유하게 승려, 성직자, 사원, 교회, 신도, 사무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리법석입니다. 저마다 자기

19) 당시 통금해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들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 하며, 틀림없이 행복을 주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애당에서 누리는 종교적인 평화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고, 필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 한가운데서, 신자 800,000명인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꼭 닮은 형국입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활한 유일한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세상 끝날에 그분께서는 마침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정치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 갈라지거나 새롭게 창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인데 하물며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사업과 가르침은, 좋은 표양과 애덕과 진리로써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나 웅변대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의 노고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자선, 인류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의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점이 많더라도, 그들의 공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구원자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가톨릭도 완전무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죄인이 있고 죄가 있으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실제 생활 사이에 모순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역동성이 부족할 때가 있고, 너무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애덕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잘못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이 상황은, 하느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가도록 돕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합니다. 서로를 저주하기보다는 함께 애덕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서로 돕습니다. 하느님은 이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십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전히 수녀원 지도 사제로 있는데, 여기에는 200명의 한국 수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녀들을 통하여 수백 배로 애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비구니 50명이 우리 수녀원에 와서 한나절을 보냈고, 얼마 후에는 수녀 50명이 절에 가서 하루를 지냈는데, 교황 대사도 함께 갔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엄청난 홍수로 4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여 수녀, 개신교 신자들, 비구니들이 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커지고 편견은 사라져, 서로의 다름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모자이크 안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이 얼마나 미묘한지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우월감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지 않으려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해 오면 언제나 진리와 애덕에 따라 대답해야 하지요. 비꼬는 말로 공격하기보다는 겸손하고 묵묵하게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샤를 드 푸코의 영성을 따르는 ‘예수의 작은 형제회’의 어느 수사님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중환자들을 하루 종일 씻겨주었습니다! 비신자들 가운데, 누가 이런 사랑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처럼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는 한복판에서도 교회는 길을 열

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호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기술화되고 눈멀어가는 세상 안에서 해체와 억압을 거슬러 각 개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인간의 의미와 인간 존엄의 감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교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교회가 자기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으며, 인류를 전 지구적인 일치에로 이끄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야말로 국제적인 교류의 공통분모가 된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체계화된 조직과 교회가 지닌 인간 경험에 감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 하기도 하는데, 혼인 예식, 상장 예식, 주일 전례, 교계 제도 등을 본떠서, 예전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양한 종교가 섞여있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가톨릭 학교나 성당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형제애와 자애로운 행동입니다. 수녀들을 통해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수천 명의 영혼들에게 가 닿을 수 있습니다. 내년엔 새로 서약할 수녀들만 해도 40명이나 되는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뒤섞인 환경에서 일하는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회심이 너무나 더딘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태어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막연하고 얼토당토않은 교리를 지닌 여러 종교가 난립하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을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 열성을 지니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내십시오! 여기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이혼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미사 참석률과 맞먹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 중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루르드 같은 곳이 없으니 그렇다 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할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알고 또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벗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마태 12,31-32 참조)

이러한 까닭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오히려 더 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도 우리 고향 본당을 위해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출신 선교사, Pierre Singer

1973년 9월 23일

에덴에서²⁰⁾ 신자들에게

나는 왜 선교사인가?

행 제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란 누구일까요? 선교사는 교회를 통해 파견 받아, 먼 곳으로 떠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제입니다. 성탄 날 목동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위대한 소식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마음 안에 거처하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 되심으로써,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친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 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나 증오 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희귀종이 되기는 했지만,

20) 본국 휴가 차 프랑스 체류 중, 에덴 신자들에게 했던 강론이다.

이 땅에서 소멸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아, 프랑스에서는 사라진다고 해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한국에서 선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를 딱하게 바라보면서 불행한 신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선교사로 살아온 4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저는 기쁨에 넘쳐 어쩔 줄 모르며 제 소명에 대해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과 곤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저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하고 사람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몇몇 분들은 제 성소의 동기가 궁금하시겠지요. 저 자신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기가 쑥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께 솔직하고도 단순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들어주시고 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질없고 헛된 대화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습디만,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유의하지 않은 이야기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행, 스포츠, 좋아하는 음식, 원피스 색깔, 정치나 경제, 노래, 영화, TV, 연극, 누군가의 결점 또는 웰빙이나 안락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나 세상의 구원을 위해 대체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상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니, 이따금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감탄을 하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쉼증나기 마련이며 깨어지고 맙니다.²¹⁾ 지금 이 말을 하

21) 세상만사가 덧없음을 의미하는 프랑스 속담

는 동안에도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에는 좀처럼 이르지 못하지요. 이것은 지적인 빈곤함의 증거입니다.

여기에 혐오를 느낀 저는 그에 대한 반발로,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류의 머리이시며 모든 세기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하느님과 비천한 인간을 잇는 중개자이십니다.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앞서 생각해야 할 분이십니다. 요한 복음에 따르면 그분만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요한 1,14) 분이십니다. 사회학에서 볼 때에도, 그분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가르치신 유일한 분입니다. 현세와 저 너머의 삶에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를 바라시며,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또한 평화를 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몽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재하시는 존재이며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 말하겠다는 데 누가 저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누가 저에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전 생애 동안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제 소명에 있어서 두 번째 동기는, 선한 일을 하고자 대결과 투쟁을 하겠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역시 여러분 보시기에 좀 이상하겠지만요.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벌이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을 사용하면서까지 너무나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애들 장난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의 위대한 전쟁, 참된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을 언급해야만 하니 어쩔 수 없이 입에 올립니다- 예

수님께서 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마태 4,10ㄴ)하고 말씀하셨을 때,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공적으로 첫 기적을 행하셨던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마르 1,21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을 쫓아내는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셨으며, 이 기적을 놀라워하는 사도들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훗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오로를 부르셨을 때에도, 부르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26,17ㄴ-18)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저를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탄은 더 이상 옛날에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보이던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셈이기에 사탄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숨겨진 또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이단이나 나쁜 학설, 폭력 또는 신앙에 반대하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이 땅에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저는 좋은 기회를 놓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 참전하기를 열망합니다. 아직 사탄의 권세가 더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에 가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길이 남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분명 이 갈망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전히 무관심한 채로 저를 비웃으며 홀로 버려둘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투쟁은 저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이것만이 제가 감수하는

고통을 가지있게 합니다. 이렇게 저는 온 삶을 바쳐 주님을 위해 투쟁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의 성소를 택한 세 번째 동기는,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 사도직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보다 큰 사랑을 보여주 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조국과 가족과 벗들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욱 완전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자기가 누릴 권리와 마땅히 지녀도 될법한 애정까지도 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 10,37)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마태 13,57c)

사실 지난 40년간 선교사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저 주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 사도직의 참된 결과를 분명히 아시니, 자화자찬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손안에 든 도구일 뿐입니다. 자주 나쁜 도구이긴 해도 말이죠!

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에게 맹세컨대, 저는 기쁨 속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엄청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널리 펼치시기 위해 저를 써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세례에 저를 동참시키시고, 본당 증설과 신축에도 참여시키셨으며, 수십 명의 수도성소와 사제성소에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이 신앙 교육과 학교건축에 협력하도

록 저를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회의 탄생에도 저를 끌어들이셨는데, 그 수녀들은 오늘날 양로원, 보육원, 병원, 학교, 종교교육 등 다양한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찬미와 감사를 받으심이 마땅하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업적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제가 좀 더 다루기 쉬운, 고분고분한 도구였다면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것은, 교만 때문도 아니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어느 누구, 혹은 그 무엇을 비난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선교사로서 지니고 있는 기쁨과 자부심을 여러분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서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까이나 멀리여, 언제나 이 수확에 동참하는 영혼들이 있었으니까요. 기도와 애공 혹은 행동으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니, 길이길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매일같이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교회와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바로 세례 받은 모든 이들입니다. 아멘.

* 형제 여러분,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저의 사명을 위해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날 12시에 비행기를 타면, 다음날 아침에는 일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거듭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 이 강론은 앞으로 다가올 전교주일을 맞아 미리 작성한 것이다. 약 4,000 프랑을 모금했으며, 어머니를 기억하는 본당 여성 단체에서 1,000 프랑을 더 모아주었다.²²⁾*

22) 마지막 문장은 성재덕 신부가 육필로 작성한 메모이다.

1975년 9월 8일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형 제 여러분, 매년 전교주일이면, 교회가 세례와 견진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선교사이며 세상의 복음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이 강론을 듣는 것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즉 가정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썩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고자 멀리에서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한심한 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자신이 선교에 동원되었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선교의 의무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든 젊은이든 어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이 교회 수뇌부인 주교, 사제, 수도자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에게 군대가 없다

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며 참된 사랑이요, 인간을 오류와 불의와 증오에서 해방하실 단 하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이들이라면, 자기 천막에 틀어박혀서 인류의 운명에 무관심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짧은 생애동안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목자없는 양들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이 가엾은 사람들을 보아라.” (마태 9,36 참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진리와 정의, 형제애와 평화의 길을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 백성 가운데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루카 10,2-3)

형제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형제인 인류 전체에게 파견되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말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 즉 믿지 않는 이들과 냉담자들에게 파견된 예언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엔 우리는 성녀의 탄생 백 주년을 기념했고, 올해는 그녀의 시성 50주년을 기념합니다. 교황님은 테레사 성녀를 ‘선교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세상을 두루 다닌 것이 아니라 봉쇄 수도원 안에 갇혀 사셨지만, 자신의 의무를 잘 이해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성취해야 하는 선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그녀도 세상을 복음화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겠다는 열망을 지녔습니다. 테레사의 나이 겨우 열네 살 때의 일일

니다. 프란치니라는 악명 높은 살인자가 있었는데, 세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회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사제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데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어요.” 그리고는 많은 희생과 기도를 바쳤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무한한 공덕을 기리는 기도문²³⁾을 백 번 바치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불쌍한 죄수를 위한 그녀의 열정이 너무나 커서, 거듭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 이 죄인의 회개를 위해 함께 간구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제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던 그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사제에게 십자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훗날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을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르멜 수녀들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가 가르멜 수녀회에 입회한 것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말했듯이 ‘영혼을 구하고 특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르멜 수녀로서 우리의 사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바치는 기도와 희생의 유일한 목적은 사도 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수많은 영혼을 구할 복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 데레사 성녀는 수도원 깊숙한 곳에서도 선교사로 살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가정 안에서나 본당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이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이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우

23) 오늘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봉헌문’으로 알려진 기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알리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합니까? 물론 에덴에는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나 혼인성사 준비를 돕거나, 가난한 이, 병자와 노인들 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등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례를 장엄하게 거행할 수 있게 봉사함으로써, 영혼과 마음의 잔치가 되게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들은 결코 복음서 한 장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자로 자처하면서도 그저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우려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근심과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더듬거리며 구원의 빛을 찾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 앞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분열과 비판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은 주일에만 차려입는 나들이옷이 아닙니다. 아니고말고요. 신앙은 우리의 피부이며, 우리 피입니다! 이 미사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자각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기꺼이 감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아멘.

Pierre Singer, M.E.P.

1976년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덴 신자들에게

먼 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루카 13,6-9)

방금 들은 이 복음은 특히 전교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번개가 번쩍하듯 강렬한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각자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주인님은 하느님이시고 포도 재배인은 그리스도이시며 나무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첫째, 이 주인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를 얻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주인은 이 나무를 포도 재배인에게 맡깁니다. 그는 땅에 비료를

주고, 나무를 심어 물을 주고 가지를 쳐 줍니다. 방금 저는 이 나무가 우리 영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계속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우리 영혼을 내맡기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내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자 하느님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걸림돌을 놓지만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뭘들 못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점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아예 그것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저는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 생애동안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저는 선교사여야만 합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돈, 좋은 직업, 모든 것이 안락하게 갖춰진 아름다운 집이 아닙니다. 하느님께는 이 모든 것이 무(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들 중에서는 그분께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사-도-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을 피하고 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착한 행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 많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모범이신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신앙인은 다른 이들을 매우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와 일치되어 가족과 이웃, 마을과 나라를 열심한 신앙으로 이끌고자 끊임없이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둘째, 살아 있는 동안 열매를 하나도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자기 무화과나무를 보러 오듯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 영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무화과나무를 좋은 곳에 심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꽃피운 그리스도교 국가에 우리를 심어 주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좋은 표양을 보고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쓸 만한 열매가 아직 하나도 없다니요! 결국 화가 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를 잘라 버리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 하느님! 이 이야기는 저를 오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야말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졌고 아름다운 집과 안락함은 물론 나름의 학위도 가졌고, 내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나뭇잎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들 사이에 형제적인 우애가 더욱 넘치게 하는 참된 사랑의 행동이며, 선교사로서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저의 책임 또한 크다는 말입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을 위한 것 말고는 모두 비누거품일 뿐이고, 무(無)에 지나지 않으며 부질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로 살아가는 한, 저의 삶은 결실을 맺는 보람된 인생이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내 포도밭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베어내고 불에 던져 버리게.”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찌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를 더 오래 살게 내버려 둘 까닭이 어디 있는가? 죽는 편이 나으리라!”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다가와, 성난 주인님을 만류합니다. 이 포도 재배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루카 13,8-9 참조)

오, 이 얼마나 크신 자애로움입니까!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여,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참되고 유일하신 중재자시여! 주님께서는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죄의 형벌을 면하도록, 끝까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느님 나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 우리는 바보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유예기간으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더 잘 살아 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권고하셨습니까!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교회와 사제의 목소리를 통해 계속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오, 이제 곧 성체를 통해 영하게 될 예수님, 저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닫지 않겠습니다. 생명 없는 수액이나 쓸모없는 가지가 아니라, 더 나은 열매를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남아 있는 짧은 시간동안 선교 활동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할 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르페브르 주교²⁴⁾같이 부차적이거나 하찮은 문제로 논쟁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잡담이나 하는 것은 우리의

24)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개혁에 반발하여, 트리엔트 미사와 전통주의를 고수하여 ‘비오 10세회’를 만들었으며, 교회일치를 해치고 교황의 승인없이 주교를 서품하여 파문되었다.

열정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본당을 대표하는 선교사로서 저는 삼가 여러분께 선교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50명을 위해서, 애당에도 있는 것과 같은 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이교인들 사이에서 이것은 조용한 애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이 요양원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성당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아 주십시오.

P. Singer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Singer', written in a cursive style.

1977년 9월 1일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선교와 십자가 : 고통에 관하여

프랑스의 위대한 성인인,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바리아 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중 각자 하나씩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거나, 통회로 착한 강도의 십자가를 지든가, 아니면 저주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나쁜 강도의 십자가를 져야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란 없습니다.”

선교주일인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뜬금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모든 사도직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의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강도(루카 23,39 참조)처럼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하잘것없는 악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거나 모독하게 합니다. 그들은 고통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통이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속전(贖錢)입니다. 자신의 안락함만 생각한다면, 어리광이나 부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일 뿐이며 세례 받은 사람답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 본성과 권능과 지혜는 모든 인간을 능가합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만, 희한하게도 고통의 왕이십니다. 가시관을 쓰신 임금이시며,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즉위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열망한다면 마땅히 십자가의 광채를 널리 펼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신 몸으로 친히 겪어내셨습니다. 머리를 기델 돌조차 없이 가난, 피난살이, 노동, 추위, 더위, 그리고 배고픔을 감내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열망하셨지만 성부께서 30년간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비겁한 사도들을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수난을 생각해봅시다! 예수님 수난보다 이미 천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깜짝 놀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이사 52,14)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자, 전능하신 분, 성인’이라고 예수님을 우러러보았지만, 죽임을 당하시자 ‘미치광이, 나약한 자, 신성모독자’로 치부했습니다! 오, 이 길을 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각자 자기의 고통과 비슷한 모습인지 살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언제나 고통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리려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요한 12,32)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

아,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루카 24,25-26)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공표하신 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웃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명예를 좇는 사람들’을 불행하다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굶주리는 사람,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루카 6,20-26 참조) 또한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 5,7 참조)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으며 고난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인간은 모두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법이며 ‘일용할 양식’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것이죠. 「준주성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사방에서 너를 기다린다. 네가 어디로 달아나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니 이는 어디로 가든지 너 자신과 같이 가고, 너 자신을 항상 만나기 때문이다.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려다보라. 밖으로 나가보고 안으로 들어와 보라. 이 모든 방면에서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²⁵⁾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외적인 고통 등, 우리에게는 자기 몫의 크고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활기를 띠게 하고 자극을 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것은 대체로 헛된 환상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인간 중 가장 위대하신 분도 고난을 겪으

25) 토마스 아 캠퍼스, 윤을수 역, 「준주성범」, 가톨릭 출판사, 2009, 124쪽.

셨습니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렇다고 투덜대며 한탄하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례 때에 우리는 악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십자가와 고통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이요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구원하고 유혹을 멀리하기 위해 고통을 겪을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앞서간 무수한 신앙 선조들이 겪었던 엄청난 고통의 결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초기의 다섯 주교님들은 이 땅에서 순교하셨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분들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오로지 우리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낼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속자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안주하여 잠에 빠져들게 되고,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이 무미건조해질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땀 흘림과 반대와 치욕, 또 길고 긴 여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고통을 참아내기 마련입니다. 귀찮음을 극복해야 하고, 아니면 반대로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과도한 애정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고 가르쳐, 마침내 좋은 결과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선교사, 신자들은 모두 하느님 나라를 위해 추위와 더위를 견디어내야 합니다. (올해 한국 겨울 날씨는 영하 20도였고, 여름에는 40도였습니다.) 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것도, 쉬지 않고 말해야 하는 것도 참아내야 합니다. 더구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가족, 친구,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사는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따라다니는 유혹을 물리쳐야 하며, 부끄러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 없이 건물을 지어야 할 때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오는, 참으로 쓰디쓴 비난도 견디어야 합니다. 소리 없이 병자들을 참아주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전쟁의 위험, 그리고 추방이나 정치적 근심거리도 감수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인, 아르스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지옥에 간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통을 겪었기에 구원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고통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저는 10년간 서울에서 본당신부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지역에 본당이 32개나 됩니다. 35년 전, 그 본당에서, 젊은 처녀들 몇몇이 지독히 가난한 중에 새로운 수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녀들이 250명이 넘는데, 수련자만 해도 60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헌신하고 있지요. 학교, 병원, 양로원, 보육원 등... 뿐만 아니라 이 수녀들은 본당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과 수고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면, 언제나 좋은 성과를 내기 마련입니다. 로마 성 베드로 광장의 오벨리스크에 쓰여 있듯이, ‘지구가 도는 한, 십자가는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고통을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새 신자들과 예비 신자들, 그리고 이교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1981년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에 수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친애하는 향우 여러분, 저는 전교주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황님과 주교님들, 또 교회 전체의 변민에 깊이 일치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 변민이란 수많은 이교인 영혼들의 구원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끔찍이도 괴로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천 년이 지난 지금 어떨습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직도 그들에게 도착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도착은 했으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치욕을 떨쳐내고 하느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찬미드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느님 아버지와 양선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치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을 흠송하고 감사드리며 찬미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 힘써 일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행동과 기도로 혹은 예물로 영혼구원을 위해 무엇이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다운 정신을 지닌 열심한 신자들, 다시 말해 선교의 정신을 지닌 여러분께, 오늘 무엇을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말씀드릴 것이라고는 오직 구원에 관한 것, 영혼의 속량에 대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루카 24,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지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ㄴ)

사도 바오로가 회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도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는 오로지 고난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 (사도 9,16)

고통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별로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이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안락함과 부요함, 휴식만을 갈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수고나 사소한 악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고통을 피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시편 126,5)

즐겁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수고하고 애쓰

며, 이마에 땀을 흘려 자기의 빵을 벌어야 합니다. 고통이나 노동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유아적인 생각들은 떨쳐 버리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 복권²⁶⁾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께서 첫 조상들과 함께 우리를 지상 낙원에서 쫓아내신 것은, 또 다른 낙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위해 이 지상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에 있어서 고통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고통 없이, 투쟁 없이, 또 수고함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을 차지할 수 없으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천국을 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좋은 사도들을 만듬으로써,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좋은 아버지와 같이 참을성 있게 사도들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불안전함에 실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길을 걷고 땀을 흘리셨으며 굶주림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모욕과 반대를 감내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계속되는 고된 일을 감수하고 좋은 표양을 보이며, 낙담하지 말고 인내롭게 훈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열정적인 사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의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 왕국에 형제들이 들어가도록 애쓸 수 있었을까요?

26) 국가가 복권 사업을 전매하고 장려한 것으로, 1933년에 발행하기 시작한 프랑스 국민 복권(국립 복권)은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와 퇴역군인을 돕기 위해 발행되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에 삼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된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통을 겪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자 분투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분 고통의 보이는 결실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가며 신앙의 불꽃을 전하고자 엄청난 어려움 중에 투쟁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부모님과 사제들, 스승들이 바쳤던 노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앞서간 이들이 지녔던 감각을 우리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영적인 후손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불꽃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태한 탓에 이 귀중한 보화를 잃을 수도 있다면,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선조들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미 기초가 놓여, 그들보다 좀 더 수월한 상황에 놓인 우리 세대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의 선교사이므로 한국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비신자들과 영세자들이 많으니까요. 15년 사이에 교회가 다섯 배로 성장했는데, 오늘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이 훌륭한 결실은 사실 첫 사도들의 고통이 맺은 열매입니다.

초대 교구장이었던 브뤼기에르 주교님은 당신 선교지로 향하던 중, 1831년에 굶주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교구장이었던 복자²⁷⁾ 앙베르 주교님은 한국에 오실 때, 밤을 틈타 성벽 아래 수구문 구멍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1839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님은 박해동안 숨어있던 작은 마을에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첫 한국인 사제인

27) 성 앙베르 주교(Laurent-Joseph-Marius Imbert, 1796-1839)는 1925년에 시복, 1984년에 시성되었기에, 본고가 작성된 1981년에는 아직 복자였으므로, 원문 그대로 '복자'라 번역하였다.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를 사제로 서품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구장은 베르뇌 주교님이요, 다섯 번째는 아미앵 출신인 다블뤼 주교님입니다. 두 분도 순교하셨는데 곧 시성될²⁸⁾ 예정입니다. 제6대 리델 주교님은 박해자들에 의해 당신 교구에서 쫓겨나 귀양살이 중 선종하셨습니다. 제7대 교구장 때부터 비로소 종교적인 평화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불과 제10대 교구장이 재임 중입니다. 사도들의 고통에 힘입어 교회가 성장하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한국 어디에나, 거의 모든 본당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량을 위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직에 있어서 구원을 위한 고통은 교회의 싹을 틔우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몇몇에게 국한된 의무나 특권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비체를 이루어, 그분과 같은 심정, 같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열망이란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일하고 고통 받고, 마땅히 필요한 값을 치루고자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고통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선교사가 아닐 것이며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몫의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 몫의 고통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도요 선교사로서의 그리스도인 삶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삶일 수도 없습니다. 어리광은 버려야 합니다! 팡파레와 레크레이션, 영화, 스포츠, 나들이 등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유익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진정한 사도직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사도직은 고통스러운 노력이며, 땀 흘리고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통을 통한 고된 발걸음입니다.

28) 원문은 '시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 다블뤼, 성 베르뇌 주교는 이미 1968년에 시복되었고, 본고가 작성된 시기와 가까운 1984년 시성되었다. '시성'을 앞두고 있음에도 '시복'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여, 역사 임의로 '시성'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전교주일에, 선교를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저 먼 곳은 물론 아주 가까운 곳의 선교를 위해서 말이죠. 만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주신다면,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그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지금 이 말이, 그저 말만 번드르한 경건한 시구절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실재(實在)입니다. 성모님은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고통을 통해 성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수녀원 안에만 있었음에도 선교의 주보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느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십시오. 곳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다른 사도에게로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으로 주교님과 사제들을 도와주십시오. 머나먼 선교지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교 국가의 열정으로부터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거든, 봉헌금으로 선교사들을 도와주십시오. 남아도는 것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값어치 있고 꼭 필요한 것임에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만한 부자의 많은 예물보다 더 하느님 마음에 든 것은 과부의 동전 한 닢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던져 주면서 ‘이거라도 바쳤으니 영혼을 구할 수 있을 테지’하는 생각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찢끔찢끔 겨우 몇 방울 안 되는 것을 주면서 말이죠.

베토벤은 ‘고통 속에서 환희를’²⁹⁾이라는 이상한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통과 수고와 노동이야말로 풍성

29) 실제 베토벤의 좌우명은 ‘고통을 헤치고 환희로’라고 알려져 있으나, 성재덕 신부는 강론 원고에 ‘고통 속에서 환희를’이라고 적어 놓았다.

함과 관대함과 정화의 원천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제든 평신도든 할 것 없이, 선교사들은 세상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다른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이 세상을 더더욱 물질주의화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비위를 맞추고 안락함을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천국이나 영혼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진창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된 생활과 땀을 흘리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폭신한 침대에 누여져 있는 사람들보다 노동자들에게, 혹은 한테서 잠을 청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우주에 가겠다는 품나는 일을 하면서, 실상은 자기 권태로움을 달래고 호기심을 채우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일벌레들을 치하해야 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곁들인 빵 한 조각이, 근사한 사교계의 진수성찬보다 낫습니다. 명예를 누리며 살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이따금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선교사요 사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낫습니다.

1982년 9월 5일

성가소비녀회에서 에댕 신자들에게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선교의 날을 맞아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에댕을 떠난 것이 벌써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줄곧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한국 전체를 통틀어 약 20만 명뿐이었지만 오늘날은 대략 14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유리한 시대였고, 하느님께서 제 소명에 충실하게 머물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죽음으로써,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50여 년 전에 저를 보내신 이곳에서 생을 마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50년 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어려움이야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프랑스의 모든 본당신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저 받은 은총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중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 다시금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

만 그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보니, 사람들이 후원금이나 봉헌예물을 보태고 있고 미사를 통해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오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어낸 첫 박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교인들은 죽은 이들에게 제를 올리는 이 관습을 반드시 지켜내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프랑스에서 우리가 죽은 이들에게 꽃을 바치듯이, 한국에서는 음식을 차려 바치는 것입니다. 음식이 좀 더 일상적이고 격의 없는 것인데, 꽃이나 음식이나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제사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신자들은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미사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돈이 덜 들어 쉽게 미사를 봉헌하곤 합니다. 이교인들은 계속해서 그들 방식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몫입니다. 아낙네들이 묘소에까지 밥과 다양한 나물, 과일과 술 등을 가져가서, 무덤 앞 상돌 위에 솜씨 좋게 차려냅니다. 그 다음 서열 순으로 한 번이나 세 번 절을 올리고, 차려진 음식을 먹도록 망자의 혼을 초대합니다. 죽은 이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니, 온 가족이 먹고 마시는 음복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별초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몇 가지 기도를 덧붙입니다. 장례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연도를 바치러 옵니다. 이 기도야말로 상장례를 아주 조금씩 그리스도교화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장례 예절이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의 장례식 색깔은 흰색입니다. 처음에는 장례미사 때 흰옷을 보면 매우 이상했는데,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또 다른 관습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사람이 죽으면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을 지내는데 모두 홀수지요. 이 날수는 가정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문상객들을 모두 고인의 친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떠나는 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모든 사람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풍습이 악용되는 사례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끼니의 대부분을 상갓집에서 무전취식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후례자식’으로 매도되는데 이 말은 가장 심한 욕입니다. 또 다른 심한 욕설은 ‘개새끼’입니다.

초상이 나면 집안이 거덜 나기도 합니다. 1주기, 2주기, 3주기 제사가 매해 반복되며, 상복을 벗기까지 3년 상을 치르니 돈이 많이 듭니다. 또 한국에는 삼우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장례 후 사흘날에 모두 묘지에 모여, 고인이 잘 모셔져 있는지, 모든 것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한국에는 공동묘지로 정해진 진짜 묘지는 없는 셈인데요, 사람들은 지관이 골라준 곳 어디에나 뭇자리를 씁니다. 앞에 펼쳐진 좋은 경관을 죽은 이가 볼 수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이곳의 상복도 참 신기합니다. 아들들은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는데, 여기저기 뜯어진 상복이 그들의 슬픔을 드러냅니다. 옷의 한쪽 팔을 빼고 입거나,³⁰⁾ 쌀가마니 만드는 굵은 새끼줄을 머리에 두르는 것도 그 슬픔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에 사람들이 묘지를 찾아가지요. 이곳에서는 음력 8월 15일에 산소에 가는데, 햇곡식을 제물로 바치고 별초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세상 곳곳에서 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조상들을 기리는 방식 중 하나이니,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습을 그대로 지켜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떠

30) 입관을 하기 전 상주는 상복을 완전하게 입지 않고 한쪽 팔을 빼고 입는데 이를 좌단우단(左袒右袒)이라 한다. 부모를 잃은 슬픔이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다는 의미도 있고, 두 팔을 다 끼워 옷을 갖추어 입을 만큼의 경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난 영혼들이 얼른 부활할 수 있게, 기존 관습을 좀 더 승화시켜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지니고 또 그 희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를 약속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아멘.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George' or similar, written in a cursive style.

에덴 신자들에게

착 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먼저 들어
봅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요한 10,16)

오늘 우리는 교황님께서 명하신대로 전교주일을 지내고 있습니
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의 영혼들을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선교에 관한 우리의 막중한 사명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만 생각하지 말
고, 전 세계를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전 세계 인구는 약 30억 정도이며 그중 10억 명이 그리스도인
이고 5억 명이 유다교와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15억 명은 이교인
과 믿지 않는 이들인데 그 수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

31) 이미 1960년에 세계 인구는 30억을 돌파하였기에, 인구수에 착오가 있
음을 감안한다면 제2차 바티칸공의회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대 작
성 강론으로 추정된다.

니다! 지금부터 20년 후면 인구가 40억쯤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 속도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종교 신자들은 매년 수십만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요한 10,16L)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장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점점 더 물질적인 삶을 사랑합니다. 과학의 최신 발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갈수록 자동차, 텔레비전, 안락한 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 생각에 급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육신이 전부니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유희에 빠져들고 있으니 이교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둘째, 많은 민족들이 옛 관습을 지키고 있는데, 거의 종교나 다름없어서 그것을 벗어나기에는 이미 눈이 가리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막 받을 참이었는데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을 핑계로 신앙을 거부하는 겁니다.

셋째, 자기 조국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걸림돌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보다도 조국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군중들의 집회에서는 어김없이 나라를 위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특히 가톨릭 교회는 외국 것으로 보여 반 애국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넷째, 어떤 지방에서는 크고 작게 잠재적인 박해가 있다거나 공산주의 선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겁을 먹기도 합니다. 타 종교에

대해 다소 폭력을 행사하며 포교활동을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덜 힘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따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표양이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나쁩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장애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지만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장애물은 사제와 수도자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본당신부 한 사람이 서너 마을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륙십 개 마을을 포함하는 엄청난 구역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늘날 복지와 번영으로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명성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 가난합니다. 도시에 사는 일부 몇몇 사람만 가난을 뚫고 나와 재산을 축적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으로 굶주리고 있지만, 그들 영혼의 굶주림은 더욱 극심합니다. 아, 지옥이 승리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 위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청합니다. 또한 거룩한 사제들을 많이 보내주시라고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성 바오로를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성 보니파시오를 독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영국으로, 성 마르티노를 프랑스로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감동되어,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모든 이가 알도록 말이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천 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성장해왔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과 체제는 바뀌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교회 덕분에 보육원, 병원, 요양원, 나환자촌, 학교, 사회사업, 자선사업과 같이, 예전에는 없었던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각 지역마다 방인 사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교황님께서도 해당 국가 출신의 주교들을 임명하고 계십니다. 120여 년 전,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주교들의 수가 600명 정도였는데, 20년

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는 2,600명의 주교가 참석했습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도움으로써 자기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가톨릭 신자라면, 그저 받기만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황님께서 어려운 데에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주는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이 전교주일에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가 있는 작은 곳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 교회를 돕기를 간청합니다. 하느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린 것을,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좋은 하느님의 은행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행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그분께 해 드리는 것입니다.



소비녀들에게

1972년 · 1975년

소비녀들에게

오 늘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전교주일로 지냅니다. 도처에 서 선교에 관한 강론을 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를 위한 봉헌금을 모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원에 온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강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분께서 원하신 것은 오로지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을 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악마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원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하느님께 있어서 창조보다 어려웠던 일이 영혼을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한 말씀만 하시면 되었지만, 영혼을 속량하는 데에는 고난을 감내하는 3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천 년이 지나서는 많은 이가 성부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4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9억 명에 불과합니다. 가톨릭,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혼들에 대해서,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매우 고귀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며 성령이 깃들어 있기에 그 모든 물질적인 부요함보다도 훨씬 값진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 마리가 길 위에서 죽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 그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우리 영혼을 위해 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위령 미사 때 이런 노래³²⁾를 불렀습니다. “피곤토록 나를 찾고 십자정사 구원하니 이런 수고 무익할까”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악마야말로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 마귀 들린 이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르 5,9)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우리에게 악을 가르치려고 애쓰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잡지, 영화 등이 있지요.

다행히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세례 받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 앞서 선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열심한 신자들과 수도자들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한 사람들 덕분이지요.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발한다면,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 1962년 분도출판사에서 펴낸 ‘미사경본’의 위령미사 부속가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 부속가의 라틴어 첫 구절을 따서 ‘진노의 날(Dies Irae)’이라는 제목으로 불린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루카 16,8c)

비신자를 가르치는 일은 위대한 과업이며 공덕을 쌓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줍니다. 선교 사도직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일이기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작년 전교주일에 전 세계 교회에서 200억 원의 봉헌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아 보이지만 사실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맥주 양조회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지난해 광고에 들인 돈만 해도 그만큼이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군함과 전투기를 만드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쓰실 돈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됩니다. 군대와 무기를 위해서,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에, 그리고 나쁜 영화를 만드는 데에 더 큰 돈을 들이면서 말이죠! 군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부에 질문한다면, 그들은 분명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그 돈을 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주신 참된 평화 말입니다.

임금들은 모두 세금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임금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님입니다! 그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조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오늘 그것을 요청하시고, 모아진 봉헌금을 두루 나누어 주십니다. 전 세계에 2,700개 이상의 교구가 있으나 2,000여 교구만 자립이 가능한 형편인데, 그 돈을 나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전교주일의 봉헌금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교황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의 수효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범위에서 교황님을 도와드립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앞서 우리 한국인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교황님을 돕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각자 재량껏 해야 합니다. 좋은 표양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표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은 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첫째,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견진성사를 받은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군사입니다. 수도자라는 것은 우리의 원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한 해에 비신자 딱 한 사람이라도 가르친다면 한국이 얼마나 빨리 하느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악한 종에게 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 25,30)

둘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가 기념한 성녀 테레사에게 어느 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간절하게 기도 하였기에 무려 20,000명이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동안 모세는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많이 하셨고, 성모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루카 22,32 참조)

신앙은 초성적인 은총이며, 공부나 토론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돈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매주 금요일 이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죄인들과 비신자들을 위해 오늘 성체 앞에서 기도합시다.

셋째,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힘닿는 대로 교황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수도자인 우리는 가난서원을 했으므로 직접적으로 돈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없으니, 잠자코 장상들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 대신 선교하느라 기꺼이 애쓰는 수녀들을 위해, 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교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1977년 10월 23일

소비녀들에게

약 110년 전, 흥선 대원군 시대에 한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습니다. 그중에는 두 분 주교님도 있었는데, 한 분은 장 주교님, 또 한 분은 안 주교님이었습니다.³³⁾ 선교사 중에도 일곱 분의 순교자가 났으며 백 유스토 신부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그분은 1866년 3월 8일, 충남 보령군의 바닷가에서 순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순교하신 것입니다. 저는 잠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꼬마 유스토가 열 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부모님과 산책을 하다가³⁴⁾ 갑자기 멈추고 몸을 굽혀 땅에 귀를 대더니, 무슨 소리를 듣고는 잠시 후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들리지 않으시나요? 아시아 사람들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수녀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교황님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의 가련한 이교인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비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33) 성 베르뇌 (장경일), 성 다블뤼 (안돈이)를 일컫는다.

34) 강론 원고에 타이핑한 불어표현은 ‘산책을 떠나다’지만, 한국어로 적어놓은 육필 메모는 “소풍 갔드니”라고 되어 있다.

기울이십시오. 성 베네딕토 라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눈발이 날리듯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만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큰 정신을 지니고서 교황님의 권고대로 전 세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과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느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강생하시어 사람이 되셨고, 말씀과 표양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온 세상의 모든 감실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 하늘에 오르시기 전,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세상에 가서 만민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놓지 말고 모든 이를 가르치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다운 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교 활동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수도자인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으뜸 선교사는 교황님입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근심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교황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전 세계에는 30억에서 40억 가량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겨우 10억이 그리스도인이며, 이 가운데서 동방정교회 신자들이 2억,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2억입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황님은 남미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신자 수만큼 사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미의 그리

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 교회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이단이나 미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전도활동이나 공산주의 선전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아프리카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야만스럽게³⁵⁾ 살던 시기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립을 이루어 예전보다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사제, 주교, 추기경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이 회교도라서 교회를 자주 공격하고, 곳곳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황님은 또한 아시아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아시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만 교회는 가장 약세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종교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북조선, 중국, 시베리아에서는 성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종교’³⁶⁾는 바로 학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황님보다 교수를 더 믿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성교회에 대적하여 싸우는 공산주의 때문에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분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교황님께서서는 해마다 사제와 수도자를 만방에 파견하시고 새로운 주교들을 서품하십니다. 교회가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백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했으나, 오늘날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오늘은 각 본당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에 대해

35) 강론 원고에 적힌, 한국어 메모를 그대로 옮겨두었다.

36) 한국어로 ‘장래종교’라고 표기되어 있다.

강론을 하거나 컨퍼런스를 열기도 합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도 외방선교회 신학원이 있습니다. 아, 성가소비녀회도 선교지에 공동체가 한두 개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나중에 시베리아나 캄차카에 좋으신 하느님을 알리러 갈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 사제들 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실제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헌금으로, 특별히 우리의 기도로 교황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성모님이 인류를 위해 매우 많은 기도를 바치셨기에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강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은 비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만약 가난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약한 탓’이라고 한공렬³⁷⁾ 주교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필요하지만, 성교회야말로 더욱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없이는 도덕이 없기 때문입니다.³⁸⁾ 도덕이 없는 사람은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가정은 시들해지고 장사하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둑이 되며, 건강도 악화됩니다. 발전이 없어,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우리의 영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상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 4,4)

예수님이 오신 지 이천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하느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37) 강론 원문에 ‘한국 사람인 한 주교Mgr Han’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한공렬 주교를 일컫는다.

38) 강론 원고에 적힌, 한국어 육필 메모를 그대로 옮겨두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커다란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을 알리는 데에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교인들의 구원을 염려할 때만이, 사람들은 그 본당과 수도회의 열정을 인정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비신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